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13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성도는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하며, 내 안의 욕신과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번제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나 갈등이 올 때도 내 안의 욕신을 죽이는 기회로 삼을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억울하게 공격할 때, 본능적으로 보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내 안의 욕신(복수심, 자존심)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기회로 삼은 적이 있나요? 최근 겪은 갈등 속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
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
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
라로 스캔해 주세요.

Sermon of the Week:

Becoming a Burnt Offering Before God



Passage: Genesis 22:1-13 (ESV)

Date: September 13, 2026

Pastor: Dong Suk Chung

In Genesis 22, God commands Abraham to take his son Isaac, whom he received at the age of 100, to the mountain of Moriah and offer him as a burnt offering, a sacrifice in which the animal is slaughtered and burned completely in the fire, wholly given over to God. The command to sacrifice a precious son was an extreme situation, one that a human would find hard to imagine, let alone accept. But what is significant is what Abraham did not do. He did not gather his family to weigh the decision together. Scripture says he rose early the next morning and set out. Had he stopped to talk with the people closest to him, their love for Isaac would have caused them to convince him against obeying God's command and he might never have left for Moriah. Centuries later the apostle Paul described his own calling in nearly the same terms, saying that when God set him apart, he did not consult with any human being but simply went forward. This pattern runs throughout Scripture. God's purposes are not accomplished through human calculation or emotions. They are accomplished when a person hears the Word of God and moves, without delay, into obedience.

This act of absolute obedience highlights a foundational principle of the Christian life: believers are called to operate on an entirely different plane of existence. All unbelievers in the world live on the "first floor", a realm governed strictly by physical senses, human logic, and earthly anxieties. But when a person is born again, they are elevated to the "second floor", the spiritual realm in Jesus Christ. Christ came to dwell within us through the Holy Spirit and those who are born again are no longer citizens of this world, but citizens of the eternal heavens.

Regrettably, many Christians continue to live and pray as though they are still trapped on the first floor. They approach God as earthly beggars, praying, "Lord, give me this" or "Lord, please do that". But true prayer is not asking God to hand over something you think you need in this life, but declaring and stepping into the finished work of Christ by faith.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Christ has already canceled our debts, healed our illnesses, and secured our redemption. Thus, prayer becomes an act of acceptance rather than negotiation: hearing what God has already declared to be finished and answering with "Amen". Christian faith is believing the fact that when Jesus died, I died

too, and when He resurrected, I resurrected with Him, and taking possession by faith of the grace God has already fully bestowed.

To fully walk in this spiritual reality, we must become a burnt offering before God. This is what Abraham's altar points toward. What was offered there was not simply Isaac. It was the demand that everything Abraham held, everything he loved, be surrendered fully, the way a burnt offering leaves nothing back for the one who brings it. That same offering is asked of every believer now: not a portion of life set aside for God on the side, but a whole life laid down, so that Christ living within us can be seen without obstruction.

Most of the trouble that surfaces in a life, or in a family, traces back to a single misplacement, something else that has quietly taken the place of God. As long as we try to navigate life's storms with our own self-effort and wisdom, we rely on a strength that inevitably fails, much like the disciples frantically rowing against the storm while Jesus slept in the boat. It is only when we exhaust our own efforts, surrender our self-will, and let our ego die on the cross that Christ arises within us to command peace over our stormy circumstances.

Nowhere is this tested more clearly than in ordinary, daily conflict. When someone makes an unfair accusation against us, the temptation is to defend, to strike back, to respond with resentment. But that flash of anger is worth noticing, because it is often the very thing God has orchestrated through that person's actions to put our flesh to death. Paul declared he "died daily", not once but continually, and we also must make that declaration and put to death the old instincts of the body so the life of Jesus could finally be manifested through us.

Before the tribulations of the world arrive, we must be armed not with biblical knowledge memorized as written words, but be filled with the living, active Word of life and obedience to the Holy Spirit dwelling within us. We are being trained in dying daily through each storm we face; as the disciple Peter learned only after exhausting his own strength trying to fight against the turbulent sea that the answer was not about what he could do but what Christ would do once He is awakened. That is the whole aim of growing in faith: to become, in the end, a burnt offering. Not looking inward at one's own effort or failure, but looking to the finished work of Christ, believing it, confessing it, and letting a whole life be laid on the altar. By laying down our lives completely as burnt offerings, we leave behind the anxieties of the earthly floor and step fully into the victory, peace, and eternal life that are already ours in Christ.

삼나소식

126호

나성교회



삼성교회

9월 27일 2026년

NASUNGCHURCH.ORG

126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22장 1 - 13절

날짜: 9월 13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창세기 22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번제란 제물을 칼로 잡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100세에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욕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 수도 없는 극한의 시련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중대한 일을 아 내 사라를 비롯한 혈육과 의논하려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라가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허락할 리가 없고, 가정에는 견잡을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혈육과 전혀 의논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욕신의 정에 매일 때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즉각 순종할 때 비로소 성취됩니다.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 세계와 욕신의 세계인 '1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2층' 영의 세계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욕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며, 거듭난 자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2층에 올라온 영의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 수 없고, 오직 영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육간에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함이었고, 완성된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시옵소서"라며 무언가를 달라고 비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내 죄를 씻고 질병을 고치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을 내 안에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자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화목제물은 콩팥과 기름은 불태우고 가슴(사랑)과 뒷다리(능력)는 사람이 나누어 먹었지만, '번제'는 사람이 얻어먹는 것 없이 전부를 불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올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이 아닌 영똥한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풍광을 잠잠하게 하려 애쓰면 주님은 주무시지만, 내 지식과 감정을 포기하고 내 영 속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억울하게 공격할 때도, 보복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말고 즉시

그 순간 내 안에서 치밀어 오는 복수심과 육신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의 이 육신을 죽이시려고 그 사람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하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환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글자로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순종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주 간 소 식

- 담임 목사님의 한국 여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에는 10월 정기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 (10/4)에는 행정위원회 선교부에서 각 남녀 선교회 후원으로 선교기금 조성을 위한 바자회를 갖습니다.



선교소식

아래는 나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선교사 명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나성교회 KM	나성교회 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Home Depot 사역 - 김학철 목사◦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 단체)◦ LA 거리 선교회 - 전예인 목사◦ 멕시코 (엔세나다) - 임주영 목사◦ 멕시코 (티후아나) - Carlos Chavez목사◦ Love Mexico - 박세목 장로◦ 카자흐스탄 - 윤영목 목사◦ Albania - 양은숙 선교사◦ 중동 (이라크 & 요르단) - 구금성 선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mbodia (TASSEL): Joji Tatsugi◦ Indonesia - 3 missionary couples:<ul style="list-style-type: none">a. Ruth and Austin Kuklenskib. Josiah and Sophie Glesenerc. Michael and Morgan LeBlanc

신앙 성장의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안에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매일 믿음으로 의에 이르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윤성한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신아영 사모

자궁선근증으로 인하여 자궁을 적출(개복)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양희 집사 (한나선교회)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희정 집사 (한나선교회)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 (한나선교회)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B 집사 (2여선교회)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한나선교회)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오중 집사 (3남선교회)

척수증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열로 인한 다리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이상문 집사 (모세선교회)

파킨슨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묘자 권사 (모세선교회)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세훈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현숙 권사 딸).
- 미리암 리 (에스더선교회)

난소암과 대장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 후유증과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 이시용 장로 (모세선교회)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연경 형제 (여호수아선교회)

방광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오른쪽 어깨 탈골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 감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무릎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